

고집을 바쳐 우리나라 어린이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어린시절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저는 어린시절부터 고집쟁이로 통해 왔습니다. 고집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도 보았습니다. 또한 이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집쟁이인 덕분에 저의 말은 보증수표로 통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재래 살이 많이 편 아이, 뚱뚱한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착각하는 풍토까지도 생겨왔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어린시절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제 나머지 여성의 모든 고집을 바쳐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건강한 아이와 거의 같은 살찌지 않고 골격이 튼튼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조제분유와 어린이 조제우유 생산에 있는 고집을 다 하겠습니다. 5월 1일 판 목표로 KIST의 힘을 빌려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시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명재

화학첨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젖을 수 있는 고

 **파스퇴르유업(주)**



PERSPECTIVE

1990

1990년 6월 25일

값 1,500원

P

051-1

2141

특집 사회주의국가의 망명지식인들

심층분석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6·25 전쟁 후

권두언 / 对北方 경제교류와 法的 理解

사회 성격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북한의 〈조선전사〉를 비판한다

중국조선족 교육의 형성과 발전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생활상

정 피해 소련, 중국, 일본을
단축>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아침으로 점심을 것은 1950년대 후반
1950년에서 50년 사이로 북한 전국에 퍼져 있다.
주제는 기획과 체계로 몇몇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경우는 대체
학교 경기장을 수료하는 시기다.

6·25 전쟁 후 숙청피해 소련 중국 일본으로 탈출

許東華

을 데는 것은 우리 이마를 맞이한
아직은 쓰는데 10년이란 세월을 소련에
나온 나에게 출판할 수 있었으므로 일본
가운데(한국)의 이사(李士)가 그려낸 그림에
는 부탁하여 우선 일본으로 밖으로 하여

나온 그는 일본(朝鮮)이란 관용을 사용하
였다. 일본이란 빌미로 경찰부도 천안군에
나온 김진(許真)이라는 고장인
한국에 살고자 했던 것이다.

먼저 숙청의 역사 살펴보아야

금 소련과 동구라파는 변혁의 격동
속에 있다. 개인승배, 당내 숙청
등 왕년의 스탈린 시대의 암흑면은 극복되고
현재는 일당독재·민주집중제까지 허물어지
고 있다.

이러한 변혁은 일조일식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56년 2월에 있었던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 이후 변혁의 징조가 눈에 띠더니
그후 헝가리사태, '프라하의 불'을 거쳐 오늘
에 이르렀다. 세월을 헤아리면 35년 정도가
걸린 셈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오랫동안
모택동이 지배하고 있었고 북한은 김일성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58



북한연구가, 대북연구소
북한연구본부 상임위원, 1932년생.
동경대 문학부 중국 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일본조선대학교 문학부 교수 역임.
저서로 『만주 핵심사전 1권』
『김일성평전』 등이 있음.

이 스탈린주의 선봉 속에서 가장 혹독한
피해를 입은 것은 항상 당간부와 당원, 민중
들이었다. 우수한 인재일수록, 시대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할수록 그들은 맨 먼저 희생되
었다. 그 태반은 국내에서 희생되었으나
더러는 국외로 망명하는 인사들도 있다.
이들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의 내막이 자유민
주주의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 독재로 말미
암은 희생을 생각할 때는 그 숙청역사를
먼저 알아놓아야 한다. 소련에 망명한 허진
은 그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1단계 남로당파 숙청(1955)

제2단계 소련파 숙청(1953~56)

북한 망명자들은 대체로 1950년대 후반에 북한을 탈출하여 소련
중국 일본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싸웠으나 이내 반길일성투사가
되어 김일성정권의 허구를 벗기고 있다.

제3단계 연안파 숙청(1956~58)

제4단계 국내파 숙청(1953~70)

제5단계 팔치산파 숙청(1969~현재)

이 시기구분은 70년대 까지를 보면 일단
우리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
에서 보면 좀 더 시기를 세분화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제6단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6단계 노간부 숙청(1973~현재)

그런데 이러한 시기구분에서 김일성독재
의 분수령으로 볼 수 있는 연도가 1967년이
다. 종래까지 노동당의 유일독재였던 북한이
김일성 개인독재로 넘어간 해이다. 이 해에
김일성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연설하여 김일성중성분자 이외는
조선노동당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하였다.

북한의 주민들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점차로 조선노동당과 김일성독재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망명을 희망한
사람은 많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망명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이 망명
자들을 보면 거의가 1950년대 후반, 4,5년이
란 짧은 기간에 망명의 뜻을 달성하였다.

이상조·허진 등 소련파 숙청시 망명

망명자가 대량으로 생긴 것은 소련파가
숙청되었을 때였다. 해방 후 소련에서 들어
온 그들은 대체로 소련과 북한의 이중국적
(二重國籍)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을 건국하는데 공이 커었던 유흥철(俞成

哲), 기석복(奇石福), 최표덕(崔表德), 이동화
(李東華) 등 장성들이 소련대사관을 거쳐
망명하였다.

최근 알려진 것으로는 이들보다 앞서서
모스크바에 유학 갔던 10명의 청년들이 소련
20차당대회 이후 북한의 김일성정권에 의문
을 품고 망명했다는 소식이 있다.

진(眞)자 들림으로 허진(許眞) 한진(韓眞)
이진(李眞), 맹진(孟眞)이 되어 행세한 허웅
배(許雄培), 한대용(韓大容), 이경진, 맹동욱
(孟東旭) 등이 그들이다. 이 그룹에는 양원식
(梁元植), 김종훈, 이진환, 정진구, 최국진,
정추도 있었는데 모두 모스크바의 영화대학,
음악대학, 연극대학 출신들이다. 현재
60세 전후인 그들은 소련에서 예술활동을
하여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한다.

이러한 인물 가운데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
진 허진(1928년생)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조선왕조 말기 의병장으로 유명한 왕산(旺
山) 허위(許爲)의 3남 허준(許峻)의 둘째아들
로 허위의 직손이다.

허웅배의 사촌당숙에는 북만주에서 활약
한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제3군에서
군장을 지냈던 허형식(許亨植)이 있었다.
그는 1909년생으로 42년에 전사하였는데
만약 그가 항일무장투쟁에서 살아남았더라면
해방과 함께 마땅히 북한에 가야할 인물
이었다.

허진(허웅배·62)은 지금 모스크바에서
소련계 동포를 하나로 통치하는 교민사업

북한에서 망명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소련파가 숙청된 1953년에서 56년 사이로 북한 건국에 공이 커던 유성철·기석복·최표덕 등의 장성들이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망명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로 김일성이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적들을 숙청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예 종사하면서 작가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데 그가 해외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1982년 일본에서 〈북조선왕조성립비사〉(부제, 김일성 정전)란 책을 발간하면서부터.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김일성을 직접 비판하는 서적을 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이 책을 쓰는데 10년이란 세월을 보냈지만 소련내에서 출판할 수 없었으므로 일본 자유사(自由社)의 이시하라(石原朝記)사장에게 부탁하여 우선 일본어로 발간하게 하였다.

이 때 그는 임은(林隱)이란 필명을 사용하였다. 임은이란 필명은 경상북도 선산군에 있는 김해 허씨의 세거(世居)하는 고향인 임은이란 동네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 〈김일성정전〉은 지금 북한을 연구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도서로 되어 있다.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북한 사정이 소상하게 밝혀진 것은 이 책에서 비롯된다. 이책은 이제 한국에서도 출판되어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

또 최근에 알려진 소련파 망명객의 한 사람으로는 알마아타에서 사는 정상진(鄭尚進·72)이 있다. 그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레닌기치〉란 한글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상진은 1945년 8월 11일, 스탈린의 대일 선전포고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소련해군 육전대(우리의 해병대)에 참가하여 나진(羅津), 청진(淸津) 전투에 참가한 인물이

다. 전공으로 적기훈장(赤旗勳章)까지 받은 그는 그후 북한에서 문화부 부부장(차관) 까지 지냈으나 소련파의 숙청으로 소련에 망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가 관계하여 온 〈레닌기치〉는 우리의 의병장 흥법도(共範圖)의 정확한 생애를 추적하여 기록에 남기는 등 역사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한국동포의 95퍼센트가 우리 말과 글을 읽어버리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6·25전쟁후 연안파 숙청시 일부 중국 망명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연안파는 거의 다 숙청되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연안파 인물 중 살아남은 사람은 윤공희(尹公鉉), 서휘(徐輝), 김강(金剛), 이필규(李弼圭)뿐인데 그들은 회의 도중 평양을 탈출하여 신의주를 거쳐 암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망명하였다. 연변에서 한국에 온 인사들에 의하면 그들 중 윤공희, 이필규는 이미 사망하였고 김강은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에, 서휘는 섬서성 서안(西安)에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을지 궁금하다.

연안파 중에서 고봉기(高峰起)란 인물이 〈김일성의 비서실장〉이란 유서를 남겼는데 이 책이 최근 서울에서 출판되었다. 어떤 재미교포가 중국에서 입수하여 한국에 가져온 것인데 고봉기가 중국에서 사망하였는가



북한에서 사망하였는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 책도 북한의 참혹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작년에 소련 민스크시(市)에 살고 있는 이상조(李相朝)가 방한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증언을 하여 주었다. 사회 일각에서 한국전쟁이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정확하게 이것이 남침이라고 증언하였다.

중국으로 망명한 조선인민군 사단 정치위원이었던 이여영(1925년생)이 최근 서울에 와서 강연하였다. 이상조는 중국에서 1946년 6월에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이에 비해 이여영은 한국전쟁 전야인 1950년 4월에

북한 망명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상조씨는 6·25 당시 북한 인민군 사령부 부참모장 이었으며 소련주재 북한 대사를 지내다 김일성 독재체제에 반기를 들고 소련으로 망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 6·25와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소련 중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을 가운데 한국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허진·이상조·정상진·고봉기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김일성독재체제의 험구를 폭로하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귀중한 증언을 해주기도 한다.

북한으로 들어온 군간부로서 전쟁에 참가한 사정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50년 4월 18일에 신의주에서 와서 곧 북한군의 군복을 갈아입고 원산에 배치되었다. 여기서 전투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가 그해 6월 19일 악전훈련 명목으로 간성에 내려가 6월 23일 '조국통일은 민주적 숙망이며 이사회 사업'이라는 입례(奉禮)의 연설을 듣고 24일 저녁 대대별 동원대회에 참가한 후 25일 새벽에 38선을 넘어 돌격하였다.

이 때 이 부대는 6월 26일자의 개전을 선언하는 김일성연설 인쇄물을 갖고 '남반부'로 나갔다. 그는 이 김일성 연설문의 첫머리에 나오는 '남반부에서 침공하였기 때문에 출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예로 들면서 한국 전쟁은 그 시작부터 허위선전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연안파는 김일성에게 이용될 대로 이용되었다. 해방 직후 무장을 하고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까지 갔다가 무장해제를 당하여 일단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은 그후 김일성의 필요에 따라 인민군의 보충인력으로 이용되었다. 한국전쟁 때 모태 동의 항미원조(抗美援助) 정책으로 '중국의 용군(中國義勇軍)'이 파견될 때도 그들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대규모로 참가하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김일성으로부터 그들이 얻은 것은 숙청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연안파 망명객이 붓을

들어 북한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유서나 기록은 언젠가는 헛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말한 내용은 조선족의 기록에 반영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다 해방 후 북한에 갔다가 이어 중국으로 다시 넘어 가 작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학천(金學璉)도 그의 작품에서 북한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1953년부터 55년까지 숙청당한 남로당 계통에서도 망명객 두 사람이 현재 알려지고 있다.

日本으로 망명한 朴甲東·高峻石의 활동

박갑동(朴甲東·1919년생)은 경남태생으로 해방 전에는 일본 와세다대학에 유학한 인물인데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의 정치부기자가 되면서 박현영 칙계인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한국동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4월에 남로당 지하당 임시 최고지도자가 되었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부하를 거느리고 월북하여 김일성정권의 문화선전성 구라과부장까지 지냈다.

그후 남로당숙청이 시작되어 갖은 고초를 다 겪다가 1957년에 북한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갔다. 그 경위는 『서울—평양—북경—동경』이란 그의 저서에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그의 진상폭로는 『갈수록 멀어지는 공화국』이란 책에 밝혀져 있다.

그는 『내부에서 본 한국전쟁』이란 저서를 일본에서 내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무력통일을 강행하려던 김일성에 대하여 남로당은 시종일관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현영이 북한에서 김일성의 식객(食客)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한국과 북한간의 인력이 잘 되지 않아서 남로당의 이러한 의사는 북한에 정화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또 전달되어도 김일성이 무력남침을 그만들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남로당의 당적 입장에서 서서 밝히고 있다.

타고난 정치가이기도 한 그는 현재 일본에서 한반도의 민족문화를 알리는 많은 저서들을 남기고 있다. 일본에 있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자주 국내로 찾아와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다.

박갑동 외에 일본에서는 고준석(高峻石·1910년생)도 활약을 하고 있다. 그는 1948년 9월 북한정권이 성립하였을 때 서울에서 38선을 넘어 북한에 다녀온 남로당원이었다. 결국 일본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최근까지 변함이 없어서 『남조선노동당사』(조선 1945-50) 『북조선현대사입문』 등 수많은 서적들을 펴냈다.

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구라파와 소련 사태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는 알 수 없으나 1988년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일정한 회의를 느낀 듯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많은 서적들은 역사기록으

로서 오래 남을 노작들이다.

거외가 反김일성주의자, 북한의 험구 폭로

이상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 한하지만 북한에서 망명한 지식인들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들은 대체로 1950년대 후반에 북한을 탈출하거나 외지에서 망명생활에 들어갔다.

그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높은 지식수준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해방 전에 그들은 일제와 대항하여 각고분투하였고 해방 후는 모두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직하고 끈기있게 싸워왔다.

그들의 지조도 확고하여 자기의 신념을 스스로 굽힌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들의 만년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두가 다 열렬한 반김일성투사란 점이다. 그들은 모두 북한에 가서 한번은 김일성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지만 김일성을 견는 과정에서 그의 가면 뒤의 진짜얼굴을 보고 결별한 것이다.

자기들이 청년시절 세운 이상이 이상과는 정 반대되는 관념이었고 장년기에 몸바친 김일성이 세상에 유례없는 폭군임을 깨달은 것이다.

한 시대의 모순을 체험한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글로도 쓰고 말로도 남기고 있다. 62